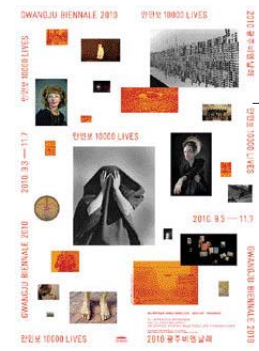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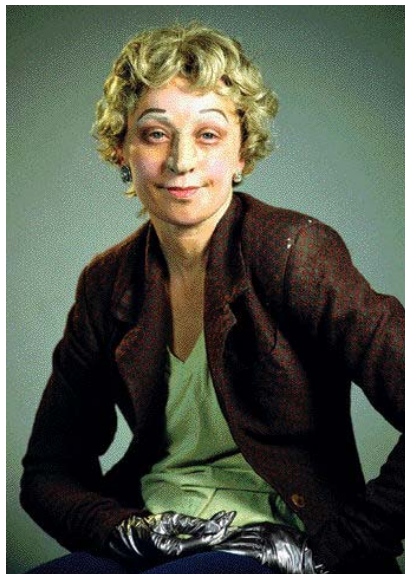


# 이 작품 놓치면 후회



## 광주비엔날레 오늘 개막



신디 셔먼 작 '무제'

“이한열 열사 영정사진은 광주시민과 30주년을 맞는 5·18광주민중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초대된 작품입니다.”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를 기획한 예술총감독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 관계자들은 어떤 작품을 추천할까? 마시말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은 비엔날레 전시관 제3전시실에 설치된 최병수의 ‘찢긴 이한열 영정사진’을 광주 관람객들을 위한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이한열의 장례식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추모 군중이 모였고, 대열의 선봉에는 이한열 영정을 실은 피켓이 앞장섰다.

이후 연세대에 보관 중이던 이 영정은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이번 전

국가에서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또 이데사 헨델스의 ‘테디베어 프로젝트’는 광주비엔날레 사상 가장 비싼 150여만원의 보험가액을 기록한 명작이다. 지난 1900년부터 1940년까지 제작된 테디베어를 찍은



피슬리 & 바이스 작 '가시적인 세계'



쓰촨 미술학교의 '렌트 콜렉션 코트야드'

## 최병수의 '찢긴 이한열 영정' 등 6작품 지오니 총감독·재단서 관객들에 추천

시를 통해 똑같이 복원됐다. 또 당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낡은 트럭에 부착한 상태로 전시되며, 최씨가 영정을 제작하기 위해 남긴 메모와 영정트럭-단장-시민 순으로 줄을 섰던 장례식 대열을 기록한 메모도 함께 선보인다.

마시말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이 밖에 비엔날레전시관 제3전시실에 전시된 ‘렌트 콜렉션 코트야드’와 제4전시실의 ‘테디 베어 프로젝트’를 눈여겨 볼 작품으로 추천했다. 다양한 이미지 속에 담긴 인류의 삶을 엿보는 주제 ‘만인보’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실물 크기의 조각 103점으로 구성된 ‘렌트 콜렉션 코트야드’는 농민의 수난사를 담고 있으며, 문화혁명 당시 선전도구로 사용된 중국의 국보급 작품이다. 지난 1965년 쓰촨 미술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제작했으며 조각료 징수, 농민의 수난, 농민봉기에 이르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모택동 정부는 이 작품을 더욱 종교하게 만들어 중국 각지에서 전시 했으며, 중국 이외의

사진 3000여 점과 실물 크기의 테디베어 인형 10여 점으로 구성돼 있다. 재단 정책연구실 김은영 실장은 스위스 작가 피슬리와 바이스의 공동작품인 ‘가시적인 세계’(비엔날레전시관 제1전시실)와 방글라데시 독립영화 감독인 아스민 카비르의 ‘나의 떠도는 영혼’(제4전시실), 신디 셔먼의 ‘무제’(광주시립미술관)를 추천작으로 꼽았다.

작가들이 20년 넘도록 여행을 하면서 카메라 앵글에 담은 3000장의 사진 연작인 ‘가시적인 세계’는 여행자의 기념품처럼 아련한 추억을 안겨준다. 또 ‘나의 떠도는 영혼’은 가족을 위해 해외 일자리를 찾아나선 방글라데시 소년 ‘바부’가 불법 범죄 조직에 속아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영상작품이다.

‘무제’는 자신이 직접 작품 속 모델로 등장하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 신디 셔먼의 작품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수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예술 감상

## 예술 감상~~잉!

### 국내의 20개 공연팀 '신명나는 굿판' ... 3~5일 문화센터 열수

‘신명나게 놀아보자.’ 지역 문화계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전통 문화연구회를 주축으로 각계 각층의 예술인들이 의기투합한 ‘2010 젊은 실험예술제 굿판’이 3~5일(오후2시~밤10시) 광주시 남구 양과동 문화체험터 열수(옛 대촌동초교)에서 열린다.

‘예술 참 쉽죠~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의 20여 공연팀과 시민작가들이 참여한다.

3일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놀이패 신명의 ‘흥에 겨워 흥에 겨워’, CNS 급관 5중주의 클래식 공연, 타악 그룹 열수의 ‘타고’, 인디 밴드 ‘광광밴드 난반달세’의 공연, 화가 주홍씨의 ‘샌드 애니메이션’ 등이 이어진다.

4~5일 메인 스테이지인 야외 공연 마당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인다.

푸른극마를 오성완 연출의 지도로 일반인들이 만든 창작극 ‘반쪽아 반쪽아’가 개막작으로 공연되며 JS엔터테인먼트의 재즈공연, 미국 출신 그레고가 펼치는 ‘인형 음악 퍼포먼스’, 일본 오쿠다 마사시의 ‘판타스틱

버블쇼’, 아프리카 이수카의 타악 퍼포먼스, 극단 갯들의 마당극 ‘폼바폼바’, 서울에서 활동하는 타악 그룹 아단법석의 ‘공감 21’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여성전통타악그룹 도도의 ‘도도 6감 콘서트’와 정란무용단의 창작무용 ‘여름향기’, 테에라 콜롬비아의 라틴댄스 ‘비다 콜롬비아’, 페막작으로 열수, 나빌레라, 민족예술단 네벗소리가 함께 만든 ‘올림·깃’이 공연된다.

그밖에 소극장 마당에서는 통영 극단 박수골의 세미뮤지컬 ‘퓨전 춘향전’이 공연되며 체험 마당에서는 줄타기, 버나 돌리기 등 민속문화체험이 펼쳐진다.

또 ‘Art is play’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민작가 전시회, 한미경과 열수의 설치 작품, 이희정 도예전시회 등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일반 1만원, 청소년 7000원. 8일 전야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http://cafe.naver.com/artgoodpa. 문의 062-676-38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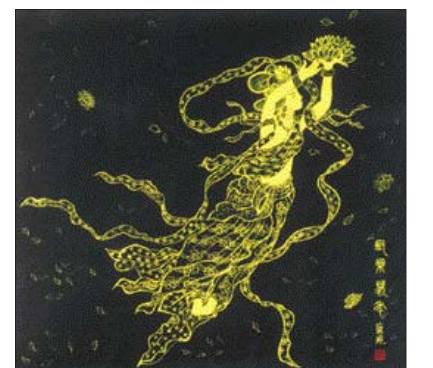
## 부처 공덕과 수행의 세계

### 정향자 사경(寫經)전 9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사경(寫經)이란 불교 경전을 손으로 베껴 쓰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불가에서는 수행의 결과물로 얻어진 것이라 이를 귀하게 여겨왔고 예로부터 부처와 같이 취급하며 법신(法身)사리로 존중해 왔다. 전통사경에 대한 연구와 수련에 매진 해온 정향자씨가 3~9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역 메트로갤러리에서 ‘수행과 공덕의 세계-난원 정향자 사경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정씨는 부처님의 공덕과 수행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반야바라밀다심경’ ‘화엄경약한계’ ‘장락만년비전도’ ‘대광광불화엄경 감지금니’ 등 사경작품을 선보인다.

정씨는 “이번 전시회는 전통사경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마음의 안락과 행복을 느끼며 지혜와



'장락만년비전도'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여년간 서예가로 활동해온 정씨는 전통사경을 위해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회장을 사사했으며 김범수 원광대 교수에 불화와 재료학을 사사했다. 지난 2008년에는 서울 법원사 불암미술관에서 제1회 전통사경개인전을 가졌다. 문의 062-453-358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반영선생 WELCOME TO JEONNAM SUNJAM RESORT

엘도라도리조트

서늘머스 온갯

당일서빙 15,000원 / 주말 및 휴일 18,000원

중도 1일 체험단골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1588-7941

MEGABOX

최고급관

www.megabox.co.kr

CINUS

www.cinus.co.kr